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금빛 윙크 다시한번" 24일(한국시각) 런던 스톡클리 아카데미에서 열린 배드민턴 대표팀 훈련에서 이용대가 셔틀콕을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女배구 메달 보인다

공수 쾌조의 컨디션 … 36년만에 결실 가능성

"오늘은 (황)연주가 좋네. 주전 자리 안 뺏기려고 열심히 훈련하는구먼."

23일 오후(현지시각) 런던올림픽에 대비하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의 훈련이 진행된 런던 로커비스쿨 연습장.

한 시간 반 동안 배구 코트 주변을 열심히 돌며 선수들의 컨디션을 꼼꼼히 점검하던 김형실 대표팀 감독이 황연주(현대건설)가 연방 왼손 강스파이크를 작렬시키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동메달) 이후 36년 만에 메달에 도전하는 여자배구 대표팀이 공수에서 쾌조의 컨디션을 뽐내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7일 런던에 도착해 셰필드에서 세 차례 영국대표팀과의 연습 경기를 치르면서 적응력을 키운 대표팀은 21일 선수촌에 입촌했다.

이후 연습장에서 강도 높은 공수 훈련을 소화하며 '죽음의 조'에서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8년 만에 올림픽 무대를 밟은 여자 배구는 세계 최정상인 미국, 브라질, 세르비아, 터키, 중국과 한 조에 묶였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도미니카공화국, 알제리가 뛰는 A조보다는 훨씬 험난하다.

김 감독은 "양효진(발목), 김사니(어깨) 등 다쳤던 선수들이 회복하면서 조직력이 살아나고 있다"며 "조별리그만 통과하면 8강 토너먼트를 거쳐 36년 만에 메달 획득도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번 대회에서는 각 조 4위까지 준준결승에 올라 크로스 토너먼트로 준결승 진출 팀을 가린다. 김 감독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겠다는 선수들의 의지가 대단하다"면서 "대표로 발탁된 고참 선수들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팀의 주장 완장을 찬 세터 김사니는 "현재 컨디션은 100%는 아니지만 경기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올림픽 최종 예선전에서 일본을 꺾고 2위를 했을 때보다 지금의 전력이 더 강해졌다"며 이변을 연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런던 소벨레저파크에서 열린 여자배구대표팀 훈련에서 김연경이 강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총vs활' 한국 첫 金 누가 쏠까

28일 밤~29일 새벽 태극전사 '골든 데이'

사격·양궁·수영·펜싱 릴레이 메달 레이스

2012 런던올림픽이 화려한 막을 올리면 3회 연속 세계 10강을 노리는 한국선수단의 '금빛 레이스'가 바로 시작된다.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총 26개 종목 중 22개 종목에 선수단을 파견한 우리나라는 양궁, 배드민턴, 유도, 태권도 등 전통적 강세 종목과 사격, 수영, 역도, 펜싱, 체조 등 최근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을 보여준 종목에서 10개 이상의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예전의 경기력을 되찾아가는 레슬링과 복싱에서도 힘을 내준다면 우리 선수단은 3회 연속 종합 10위 이내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무난히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

관건은 대회 초반의 메달 레이스, 특히 현지시각으로 개막식 다음 날인 28일의 성적이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금메달 전략 종목의 경기가 이날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날을 온통 금빛으로 장식해야 '태극호'는 순항할 수 있다.

영국과 한국의 시차(8시간) 때문에 이날은 TV 앞에 앉은 우리 국민도 태극전사들과 함께 밤을 꼬박 새워야 할 판이다.

시간상으로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에 출전하는 진종오가 금빛 신호탄을 쏘아올릴 가능성이 크다. 4년 전 베이징올림픽에서 50m 권총 금메달을 목에 건 진종오는 28일 오후 11시15분(이하 한국시간) 10m 공기권총 결승 경기를 치른다.

29일 오전 2시10분부터는 임동현·오진혁·김법민으로 구성된 남자양궁 대표팀이 단체전 결승에서 올림픽 4연패에 도전한다.

바통은 '한국 수영의 희망' 박태환이 이어받는다.

박태환이 올림픽 2연패와 함께 세계기록 경신에 도전하는 남자 자유형 400m 결승 경기가 오전 3시51분 열린다.

박태환의 주종목인 자유형 400m는 그가 이후 출전할 자유형 200m와 1500m의 메달 색깔까지 좌우할 중요한 경기다.

오전 4시30분이 되면 여자펜싱의 남현희는 플뢰레에서 '골든데이'의 마침표를 찍는다.

30일 새벽에도 금메달 소식이 기다린다.

이성진·기보배·최현주가 호흡을 맞추는 여자양궁 단체전 결승이 이날 오전 2시10분 시작된다.

이들이 금빛 과녁을 명중하면 한국양궁은 여자 단체전에서 올림픽 7연패를 이룬다.

31일 새벽에는 남자 유도 73kg급의 왕기춘이 '금빛 메치기'에 나선다.

박태환은 이날 오전 3시43분 열릴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다시 메달 사냥을 벌인다. 8월1일 새벽에는 남자 유도 81kg급에 김재범이 출전한다.

8월1일 밤은 메달 레이스의 분수령이다.

여자유도 70kg급의 황예슬에 이어 2일 새벽에는 베이징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딴 남자역도 77kg급의 사재혁이 금빛 레이스에 가세한다.

8월2일과 3일 밤에는 양궁 여자 개인전과 남자 개인전에서 '태극 신궁'들이 다시 활시위를 당긴다.

5일 밤에는 역도 여자 75kg이상급의 장미란이 출전해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6일 밤에는 한국 체조 사상 첫 금메달을 노리는 양학선이 남자 도마 결승 경기를 치른다.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60kg급의 정지현도 이번 대회 금메달로 한국 레슬링의 부활을 알리겠다는 각오다. /연합뉴스

김연경 "나 때문에 메달 못따면 안 돼"

"계약문제 마음 무겁다"

런던올림픽에서 36년 만에 메달 획득에 도전하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의 '대들보' 김연경(24)은 "계약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나 때문에 팀 성적이 좋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연습에 집중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다.

김연경은 23일 오후(현지시각) 런던 로커비스쿨 연습장에서 훈련을 끝낸 뒤 현재 심정을 답답하게 말했다.

그는 원 소속구단인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과 해외 이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다 이를 풀지 못한 채 런던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김연경은 에이전트를 앞세워 터키 페네르바체 구단과 2년간 연봉 총액 30억원에 계약했으나, 흥국생명은 구단의 허락 없이 이뤄진 계약은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연경의 이적 신분을 둘러싸고 양측의 논리가 팽팽해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연경은 "사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면서 "내가 코트에서 훨훨 날 수 있도록 (흥국생명 구단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부담스럽지만 최대한 연습에 집중해 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자 배구 선수를 30년 이상 지도해 온 김형실 대표팀 감독은 "김연경을 보면 나도 답답해진다"며 "연경이도 결국은 마음 여린 여자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유도선수단 "금 2개 메치러 왔다"

결전의 땅 런던에 도착

메달 향한 마지막 훈련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최소 2개 이상의 금메달을 노리는 남녀 유도 대표팀이 마침내 '결전의 땅' 런던에 도착해 본격적인 메달 수확을 향한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갔다.

남녀 유도 대표팀은 24일 새벽(한국시각) 11시간에 걸친 장거리 비행을 끝내고 런던 히스로 공항에 도착해 곧장 올림픽 선수촌으로 이동했다.

정훈 남자 대표팀 감독과 서정복 여자 대표팀 감독을 필두로 14명의 남녀 대표팀(남 7·여7)은 말끔하게 선수단 단복을 입고 입국장을 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유도는 이번 대회에서 남자 73kg급의 왕기춘(포항시청·세계랭킹 1위)과 남자 81kg급의 김재범(한국마사회·세계랭킹 1위)에게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정훈 감독은 "마치 내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한 마음으로 런던에 왔다"며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기분이 좋았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넘는 지옥 훈련을 모두 마쳤다"며 "그렇게 고생을 하고 런던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가면 바보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남자하키 메달 투혼

런던올림픽 개막을 사흘앞둔 24일 새벽(한국시각) 남자하키 대표팀 선수가 리버뱅크 아레나에서 열린 호주 대표팀과의 연습경기에서 골문을 향해 드리블 하고 있다. 남자하키 대표팀은 오는 30일 하키센터에서 뉴질랜드와 첫 예선전을 치른다.

/연합뉴스